지상의 모든 꽃이 아름다운 까닭

최수철 작가 '독의 꽃' 발간

"삶이라는 책 한 장 한 장에는 독이 묻어 있어. 네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 책장을 모두 넘기고 나면, 그로 인해 중독되고 탈진하여 죽음에 이르게 돼. 그러나 너는 그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

198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최수철(61)의 '독의 꽃'이 나왔다.

독과 약을 동시에 품고서 죽음에 이르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몽구'는 특이한 질병 때문에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정권 주변을 맴도는 어용 문인인 아버지와 병약한 체질인 어머니 사이에서 불안정한 성장기를 보낸다. 어머니라는 둥지 안에서 안주하려 하지만, 그것조차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휘두르는 정신·육체적 폭력 탓에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

급기야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고, 독의 세계에 심취되어 몰두하고 있는 환경운동가이자 행위예술가인 삼촌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와의 동거는 두통이 발생한 원인이 아니라 두통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만든다. 두통이라는 독에 맞서 싸우는 대신 독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도록 이끈다.

몽구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구급차에 실려 종합병원으로 옮겨진다. 담당 의사의 말에 따르면, 위에서 보툴리누스균과 프토마인균이 검출됐다. 그 균들로부터 방출된 독소가 몸에 흡수되면서 혈액을 통해 장기를 공격했는데, 말하자면 몸 전체가 독성 물질에 감염된 상태였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혼몽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던 그는 같은 병실 안에서 한 남자를 발견한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강한 독성 물질에 감염됐다. 신경·면역계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던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이 웅얼거린다.

저주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한 그 소리에 괴로워한다. 처음에는 두 귀를 틀어막고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싶었고, 밤마다 그 소리가 독물처럼 나의 귓속으로 흘러드는 듯해 섬뜩해한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 점점 사로잡힌다. 그리고 어느 새벽에 몽구는 온몸이 부드러운 털 모양의 가시로 덮이고 긴 이빨에 뱀처럼 갈라진 혀를 가진 존재를 목격하게 된다. 다음 날 그는 돌연 사라져버린다.

이 소설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독인 동시에 약이다. 독을 한 가지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많은 보조관념들로 은유하며 독에 관한 인식을 확장시킨다. 물질로서의 독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 증오심, 분노, 공포, 탐욕, 교만, 호색, 탐욕, 나태, 시기, 거짓된 신념, 진부하고 편협한 사상 등 의식에 침투하는 온갖 정신적 작용을 독으로 규정했다.

최 작가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곧 한송이 '독의 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살아 있는 매 순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외부의 적대적인 힘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다른 생명체를 공격적으로 섭취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 하나하나야말로 곧 한 송이 '독의 꽃'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말 또한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지상의 모든 꽃이 아름다운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548쪽, 1만5000원, 작가정신 /뉴시스

14일의 기념일 '로즈데이' … "노랑·파랑 장미는 피하세요"

14일 '로즈데이'를 맞아 장미의 꽃말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4일 로즈데이는 연인에게 장미를 선물하는 날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미는 여러 색깔이 있는만큼 그 색깔에 따라 꽃말과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색깔 선별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색인 붉은 장미는 '절정, 기쁨, 열렬한 사랑,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백장미는 '존경, 순결, 결백, 비밀'이란 꽃말을 지녔다. 보라색 장미는 '불완전한 사랑', 분홍색 장미는 '사랑의 맹세, 행복한 사랑, 감명'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주황 장미는 '첫사랑, 수줍음'을 뜻한다.

선물 시 주의해야 할 장미는 노란색과 파란색 장미다. 노란 장미는 '완벽한 성취'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질투, 시기'라는 뜻도 있다. 파란색 장미 역시 '기적, 희망,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지만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함'이란 의미도 담겨 있다.

한편 장미는 개수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한 송이의 의미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20개의 장미꽃은 '열렬히 사랑한다', 22개의 장미꽃은 '둘만의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30개의 장미꽃은 '성숙한 사랑', 44개의 장미꽃은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의미다.

'로즈데이'는 미국에서 어느 꽃집 청년이 장미로 사랑을 고백한 것으로부터 유래됐다고 한다. 미국에서 꽃 가게를 운영하던 청년 마크 휴스가 애인에게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장미를 바치며 고백했다는 내용이다.

밸런타인데이로부터 시작한 '14일의 데이'는 3월14일 '화이트데이', 4월14일 '블랙데이', 5월14일 '로즈데이', 6월14일 '키스데이' 등으로 확대, 매월 14일마다 연인들을 위한 특별한 날로 자리매김했다. /뉴시스

남원시,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펼쳐… 평민들의 생활 속 기쁨의 노래 '오늘이 오늘이소서'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 사진.

남원시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일환으로 공연하는 남원아리랑 '오늘이 오늘이소서'를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광한루원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2월에 공연된 '남원성싸움' 속편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오늘이 오늘이소서' 노래는 고려 말부터 조선조 중엽까지 우리 조상들이 축가(祝歌)로 즐겨 불렀던 노래며, 특히 평민들이 생활 속의 기쁨을 노래한 것으로 지금의 아리랑만큼이나 그 당시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였다. 하지만 정유재란 이후 노래의 전승이 끊겼고 양금신보(梁琴新譜)에 악보만 전할뿐이나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남원도공 후손들에 의해 희미하게 맥을 잇고 있었으며, 공연에서는 420여년이 지난 오늘 이 노래의 부활을 위한 작업으로 전승의 씨앗이 된 일본으로 끌려간 남원도공들의 삶과 도자기에 대한 예술혼을 이야기 한다.

그동안 창극 '춘향전' 등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공연물로 제작해 온 남원시립국악단의 24번째 기획 작품인 남원아리랑 '오늘이 오늘이소서'는 음악적 형식 변화를 통해 관객들이 남원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관람하고, 감동받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악뮤지컬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전승의 맥이 단절되어 있던 지역의 무형문화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전통예술 다양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전통예술의 보편성 확보와 생활화로 남원만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특화된 공연물을 제작 보급하여 지역 이미지를 재생산 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전통예술의 문화관광자원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셋째주 목요일은 무료영화 보는 날!

부안예술회관서 내일 오후 3시·7시 30분 '증인' 무료 상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16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하루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 '증인'을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증인'은 이한 감독(완득이, 우아한 거짓말 감독) 작품으로, 유력한 살인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민변출신 변호사(정우성 분)가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소녀(김향기 분)를 만나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소통해 가는 영화이다.

영화 '증인'은 섬세한 연출력과 탄탄한 스토리,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독보적 개성과 연기 내공을 갖춘 배우들이 선사하는 앙상블, 이 모두가 합쳐진 착한 영화이다. 또한 주연 정우성은 지난 1일 2019년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에서 영화 '증인'으로 대상을 받는 영예까지 얻게 되었다.

특히 오랫동안 신념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현실과 타협하고 속물이 되기로 마음먹은 변호사 '순호'가 자신의 출세가 걸린 살인사건에서 '지우'를 만나면서 성장해 가는 장면과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해 소통이 서툴렀던 자폐 소녀 '지우'가 증인이 되어 세상과 소통하려는 용기를 갖게 되는 따뜻한 울림이 있는 영화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마음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린 이 시대에 모두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영화 한편으로 감성충전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예술회관 '증인' 무료영화 상영은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12세 이상 선착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